



임신이란 한마디로 ‘경이로운 축복’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그 임신이 첫번째 임신이든 또는 두번째 임신이든지 간에 모든 임신은 소중하며 기쁜 일이다.

최근 수정과 임신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더욱 급속히 밝혀져 가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불임증으로 고생할 부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거의 대부분의 불임부부들도 이제는 현대과

진단에 대한 필수적인 상식들을 요약하려 한다.

1. 필수적 기본검사

임신을 앞둔 예비부부는 서로 건강진단을 받아서 문제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기본검사들의 항목은, 임신초기에 받는 검사들과 비슷한데, 혈액형을 포함한 일반 혈액검사(빈혈등), 소변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

이러한 가벼운 질환이 유산 또는 조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타 월경이 불규칙하면 배란과 관계된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황체호르몬 등이 부족하면 역시 임신 후에 유산이 흔하기 때문이다.

2. 질병의 예방

또한 임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의 발견에 주의를

특집 · 임신부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임신 전 건강관리와 건강진단

박 문 일 · 한양의대 산부인과

학을 응용한 다양한 인공수정법을 통하여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임신이 된 후에 그 임신이 건강한 만삭분만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유산(自然流産)과 조산(早産)이며 만삭에 분만하였더라도 선천성 기형 등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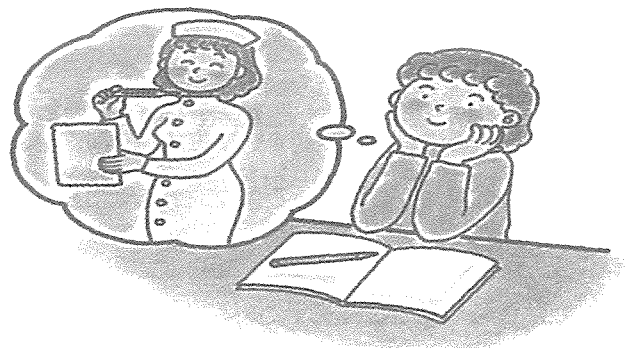
따라서 임신 전에 이러한 불행을 미리 막을 준비를 한 후에 임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란에서는 임신 후에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는데에 필요한, 임신 전 건강

사, 풍진 혈청검사 등이 필수적이다. 흉부 X-선 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검사는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 받아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특히, 냉대하증이 있다면 냉의 배양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기울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많은 질병으로는 결핵, 간염 등이 있으며, 매독 또는 임질 등의 성병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좋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물



론 치료 후에 결혼 및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결핵

결핵은 최근에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종종 발견되는 질환이다.

결핵에 감염되면, 임신 후 태아의 발육에 장애를 가져와 저체중아를 분만할 빈도가 높아진다.

2) 간염

우리 나라에 많은 간염은 필히 임신 전에 진단을 해주어야 한다. 간염에서는 비록 기형아 등의 염려는 적으나 조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임신중 또는 분만시 신생아에게 간염이 전염될 수도 있고 수유시에도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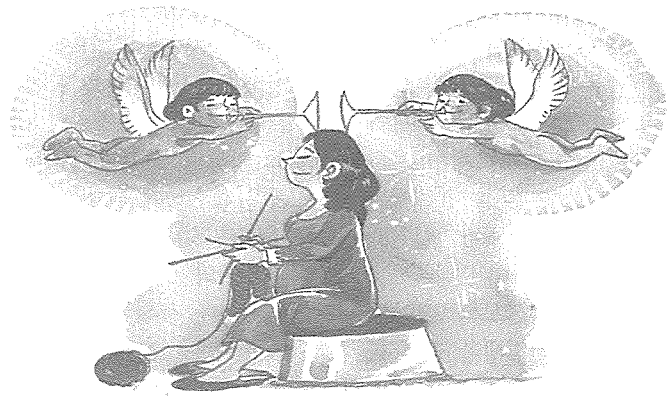
3) 성병

성병은 임질, 매독, 헤르페스 등이 중요하다.

(1) 임질

임질은 출산시 아이가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할 때, 신생아의 눈으로 전염되어 실명할 수도 있다. 또한 신생아에서 임질성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해야 한다.

특히 임질은 감염되었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배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질환은 임신 중에도 한번 더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2) 매독

매독균이 태아에 감염되면 선천성 매독을 발생시키며 여러 가지 기형이 발생된다. 따라서 매독은 필히 산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만약 감염되었을 경우 즉시 치료해야 한다.

임신 중에 발견되었다면 적어도 임신 5~6개월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헤르페스 감염

헤르페스 감염증은 임신부의 질, 자궁경부에 잘 발생된다. 자궁으로 감염되거나 태아에게 직접 감염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질환으로서 태아 또는 신생아가 헤르페스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약 50%에 이르며, 생존하더라도 약 반수에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4) 당뇨병

당뇨병 산모들에서는 임신 중에 태아의 체중이 늘어나서, 과체중아 또는 거대아 임신이 흔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난산에 의한 제왕절개 수술이 많아지며, 산모측에

위험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5) 고혈압

(1)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은 예전에는 임신중독증으로 불리웠던 질환이다. 임신 전에는 정상이다가 임신 중에만 고혈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임신 전에는 발견하기 힘들다.

(2) 고혈압 및 심장질환

고혈압이 있는 여성은 필히 임신 전에 정확한 진단을 거쳐 치료를 해야 한다. 임신 중에는 고혈압이 있는 산모는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특히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태아는 발육지연과 자궁내 사망 등의 위험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6) 갑상선질환

내분비 질환 중에서 중요한 질환이다. 특히 갑상선 기능저하증에서는 습관성 유산의 빈도가 높으므로 임신 전 진단이 필수적이다. [Z]